

로또, 모바일로도 산다…회당 5000원 한도

월~금요일 판매…오늘부터 상반기 시범운영 22년만에 법정배분제 개편 수익금 탄력 적용

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로도 로또를 구매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최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0여년간 복권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모바일 판매서비스 시범 운영 등을 포함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을 의결했다. 복권위는 우선 9일부터 동행복권 모

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000원이다. 통상 로또 구매가 물리는 토요일에는 현재처럼 판매점이나 PC로 구매하면 된다.

복권 판매점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체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 복권의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복권위는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향후 구매 한도, 판매점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2년 만에 법정 배분제도도 현장 수요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법정 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돼 운영되면서 재정 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성과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20% 내에서 조정하는 등 경직성 완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법령상 고정된 배분 비율이 높다 보니 성과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수요를 고려해 복권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고정된 법정 배분 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이내’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잔여 재원은 취약 계층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 평가한 배분액 조정 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

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 배분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로또 판매액은 2015년 3조원대, 2020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을 넘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로또 복권 모바일 판매

2월 9일부터 시범운영

구매 방법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구매
※ 현재는 복권판매점 방문 또는 인터넷 PC로만 구매 가능

나이 제한 19세 미만 청소년 복권 구매 당첨금 수령 불가

구매 시간 월요일 오전 6시 ~ 금요일 밤 12시

구매 한도 PC·모바일 구매금액 합산 1회차 5,000원

판매 한도 PC·모바일 합산 전년도 판매액의 5%
※ 주간 판매한도 초과 시 PC·모바일 조기 판매 중단

변호 선택방법

● 직전회차 구매번호

● 나만의 번호
(번호 선택 및 나만의 번호 저장)

● 번호 선택

- 수도: 직접 번호 선택에 구매

- 번호: 번호를 부분적으로 선택, 자동 선택번호는 구매 후 확인 가능

- 자동: 시스템에서 자동 발급, 구매 후 번호 확인 가능

● 자동 1매 추가(시스템 자동 발급)

연암뉴스



번호 선택 화면 예시
자료: 기획예산처

“설 상차림 전통시장서 준비하세요”

광주시, 은누리상품권 최대 4만원 환급행사

10~14일 10곳 농축수산물 구매 고객 대상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지역 1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은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월곡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또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

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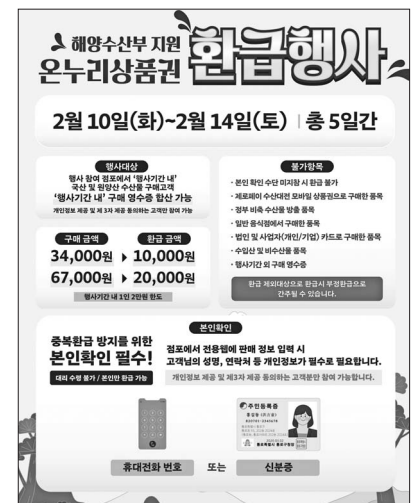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은누리상품권(지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이다.

예를 들어 5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6만7000원 미만에 해당돼 1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원, 수산물 최대 2만원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 말



바우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백은정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5일 압해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식품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농협 전남본부,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

전남 400여개 하나로마트·경제사업장 대상

농협 전남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공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식품안전 특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지역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일에는 압해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여부를 비롯해 소비(유통)기한 경과 상품 관리, 부적합 전열 상품 관리, 허위·과대광고 표시 여부,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전남본부는 설 연휴 전까

지 도내 400여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공장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자체 점검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모든 제조·판매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미국발 충격에 코스피 출렁…개인 ‘저가매수’ 5000선 사수

외국인 3조원 넘게 순매도

반도체 위주로 대거 투매

코스피가 지난 6일 미국발 한파에 급락을 거듭하다 개인투자자의 매수세에 5000선을 지켜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50.42p(2.91%) 내린 5013.15로 출발해 74.43p(1.44%) 내린 5089.14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코스피 선물 가격이 5% 넘게 급락하면서 오전 9시6분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지난 2일 발동된 이후 4거래일만에 올해 두 번째 울리게 됐다.

이렇게 밀린 지수는 4899.30까지 밀려 4900선 아래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낙폭을 줄여 5000선을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5조원을 매도했던 외국인은 이날도 3조326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이날 기관은 9604억원, 개인도 2조1736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개인은 전일 역대 최대치인 6조원 넘게 사들인 데 이어 이날도 매수를 지속했다.



지난 6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급락했으나 지수를 회복해 종가기준 74.43p(1.44%) 내린 5089.14로 장을 마쳤다. www.hanabank.com

증시 하락을 이끈 외국인은 반도체주를 위주로 대거 투매에 나섰다.

외국인은 이날 SK하이닉스를 9620억원 순매도하며 가장 많이 팔았으며, 삼성전자로 8920억원 순매도했다.

간밤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자본지출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게 급락하자, 국내 증시도 덩달아 휘청이는 모습이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올해 AI 관련 자본지출이 작년의 감절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한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은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설비 운용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AI 자본지

출이 투자 대비 이익을 충분히 거둘지 의구심을 놓지 않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작년 12월 구인건수가 팬데믹 시기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난 점도 매도세를 자극했다.

코스닥 지수는 31.33p(2.83%) 내린 1077.08로 시작해 27.64p(2.49%) 내린 1080.77로 종료했다.

최근 하락세를 지속한 비트코인은 한때 90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전 9시20분 기준 8900만원까지 하락해 지난 2024년 10월 15일(장중 최저 8751만원)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www.gjajawody0316@

전남농협, 직거래 행복장터 운영

10~12일 하나로마트 남악점

농협 전남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설 맞이 직거래 행복장터를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남악점 특별 판매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에는 전남 농산물 광역브랜드인 ‘상큼애’와 ‘오매향’ 품목을 중심으로 사과·배·딸기·레드향·샤인머스켓·바나나를 비롯해 표고버섯, 육포 등 전남을 대표하는 농축산물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아울러 기획상품 전시관을 운영해 전남 본부가 기획한 ‘동심협력 ONE-STOP 상차림 세트’도 선보인다. 이 세트는 배, 사과, 밤, 대추 등 제수용 농산물과 간편 일회용품 등을 함께 구성해, 성묘 상차림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전남농협은 동심협력의 자세로 역량을 모아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isuhong@nonghyup.co.kr

비수도권 혁신…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추진

중기부, 2개 이상 지자체 연계 덩어리 규제 해소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역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에 관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10차례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해소했다. 재정도 지원해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힘썼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가치사슬 전주기에 걸친 실증과 속도감 있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산업 공급망 전반의 규제 해소를 위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 신규 지정에 본격 착수한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해 특구를 공동 기획·운영하는 방식이다. 개별 자

치 단위에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복합 실증을 현실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는 물론 실증연구·개발(R&D)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이번 후보 과제는 △스마트농업 △신유동물류 △신해양래저 △의료관광 △수소의 5개 사업 모델 등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지역 여건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할 수 있다.

특구 후보 과제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제안서 제출기간은 3월 9~13일까지다. 중기부는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3개 내외의 후보 과제를 선발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특구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신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kimzy@nonghyup.co.kr